

PEOPLE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주)크립시스

담양군에 소독물품 150개 전달

담양군은 최근 (주)크립시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소독물품 150개를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크립시스는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인체용 의약품 등 OEM·ODM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 1995년 설립 이래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형원 (주)크립시스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 물품은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주민과 시설에 전달해 호흡기 질환 예방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전남개발공사

적극행정 경진대회 ‘기관표창’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종모)는 2025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군·공공기관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심사 △전문가 서면심사 △공무원·도민 온라인 투표 △발표심사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을 결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시 지역 만원주택 공급 사례를 발표해 도민 체감도와 정책의 창의성, 전국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전세 방식으로 확보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청년·신혼 부부에게 6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존 만원주택이 군 지역 위주로 공급됐던 것과 달리, 전남 청년 인구의 약 72%가 시 지역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 협력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박정철 기자



자연인 바이오팜(주)

나주시 금천면에 생필품 기탁

나주시는 김중관 농업회사법인 자연인 바이오팜(주) 대표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식용유, 화장지, 간장 등으로 약 1100만원 상당이다. 시는 이장협의회를 통해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했다.

김중관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어르신 및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지영 금천면장은 “소중하고 따뜻한 사랑 나눔 감사하다”며 “더욱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금천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

‘전통문화예술 발전 앞장’ 김종채 선생 흉상 제막식

서재필 기념공원 조성·문화예술 발전 기여
추진위원 36명 십시일반 모아 제작비 마련

서재필 기념공원 조성과 전통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대원’ 김종채(87) 선생 흉상 제막식이 보성군 문덕면 소재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최근 열린 제막식에는 김종채 선생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원, 이병훈 전 국회의원, 박치영 (주)아건설 회장, 김영삼 (주)동아기술공사 회장,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흉상 건립을 위해 보성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초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며, 36명의 위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제작비를 마련했다. 흉상 제작은 조각가인 김대길 전남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제막식은 개회식, 국민례, 추진위원 소개, 위원장 인사, 축사, 헌시 낭송, 헌화가, 답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 유치면 출신인 김종채 선생은 보성 문덕면에 송재 서재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 지역 5개 한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 한국관을 설립했다. 또한 광주시립국극단 창단과 광주국악대전 창설에 산파 역할을 했으며, 국창 임방울 선생 현장사업 전국화 등 국악 인재 발굴



대원 김종채(87) 선생 흉상 제막식이 최근 보성군 문덕면 소재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원, 이병훈 전 국회의원, 박치영 (주)아건설 회장, 김영삼 동아기술공사 회장,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육성과 전통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김종채 선생은 현재 서재필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흉상건립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김종채 선생의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힘이 미친 영역이 이리 넓을 수 있을까 하는 감탄과 존경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추진위원들이 뜻을 같이 해 김종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귀

감이 될 수 있도록 흉상을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김종채 선생의 흉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한 분의 헌신이 공동체와 지역, 나라를 얼마나 빛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다. 많은 분들이 선생의 숭고한 뜻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김형수 복구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은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행정·의정리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 주민 등의 공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제9대 광주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형수 의원은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오른쪽)이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행정·의정리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자치분권 혁신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핵심 프로그램인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의 참가자 실기 심사를 지난 26일까지 목포과학대학교 조리실습실에서 개최했다.

남도 청정식재료와 손맛, 박람회 무대에서 꽃핀다

‘미식로드’ 실기심사 성황…30팀 다양한 미식 메뉴 선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핵심 프로그램인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의 참가자 실기 심사를 지난 26일까지 목포과학대학교 조리실습실에서 개최했다.

실기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0개 팀을 대상으로 현장 조리과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은 플레이팅, 시식·심사와 개별 면접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메뉴를 지정 시간에 조리, 제공하고 위생 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심사에 임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음식문화 연구가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맛과 조리 기술, 지역 식재료 활용성, 운영 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종 선발된 24개 팀에는 메뉴 컨설팅과 위생교육, 프로필과 메뉴 촬영 등이 제공되며, 선발팀은 박람회 기간, 남도 미식로드 부스에서 각자의 메뉴를 판매토록 해 관람객에게 남도 미식의 정수를 선보일 방침이다.

합격자 명단은 9월 1일 박람회 공식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며, 메뉴 컨설팅과 교육 등은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참가팀이 보여준 우수한 조리 역량을 통해 남도 미식이 지닌 다양성과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선발된 팀이 박람회 무대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 미식의 가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승인된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행사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외에도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5 국제농업박람회 등 메가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한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한다. 국내외 귀빈과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남권(고산온천도박물관·평굴순례문화관), 진도권(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목포권(문화예술회관·실내체육관) 등 6개 전시관에서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감성과 미래, 국제화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농업 전시·체험의 장으로, 국내외 농업 관계자와 관람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는 최근 광주 서구 광천동 우스퀘어에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한 생수 2000병을 제공했다.

광주교통경제인단체協, 운수종사자 생수 나눔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가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친 운전자들에게 지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눈길을 끈다.

31일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는 최근 광주 서구 광천동 우스퀘어에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한 생수 2000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폭염 속 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운전자에게 위안을 주고 편안한 운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내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화물주선사업협회,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광교협 소속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모범운전자회 회원과 후원자 100여명이 동참해 운전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조정례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장은 “운전자들의 건강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교통가족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산구, 공직자 생생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의 하나로 신기술 실무 인재 양성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함께 공직자 생생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동구, 동부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동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동부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동구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등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